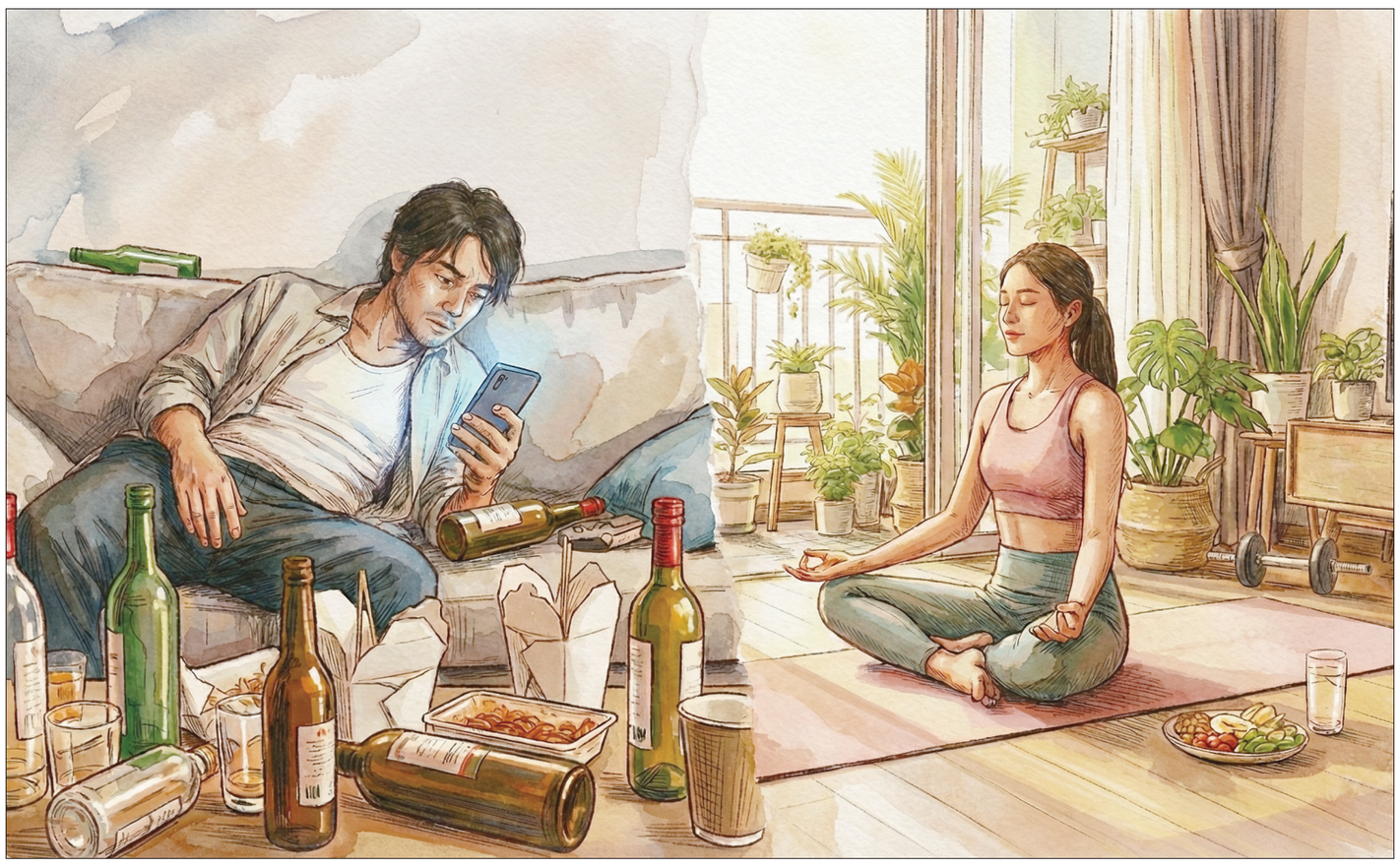
단 하루라도 온전한 나로 살아야

지금 이 세계戒

② 불편하지만 행복한 하루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편리의 시대를 살고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손바닥 위의 스마트폰을 조금만 만지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 이리저리 찾아보며 오랜 시간을 들여야 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뭐든지 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요술 램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요술 램프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차 무언가에 쫓기는 듯하고 이유도 모른 채 지쳐 가는 모순적 삶도 존재한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 단순한 소유를 넘어 그 과정까지 자신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 배움 역시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을 되새기며 힘들게 외우면 지식을 넘어 인내와 성취를 같이 얻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사라져 버렸고,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면 시대에 도태된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점차 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 쉽게 산 물건은 쉽게 사용되고 쉽게 버려진다. 편하게 얻은 것은 그때뿐이고 어느새 배운 기억조차도 사라져 버린다. 집 안에 물건이 가득하지만, 정작 쓸모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정보를 찾아보지만 정작 기억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잠드는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을 계속 지켜보지만 정작 스마트하게 도움이 되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는 요술 램프의 지니가 그 요술에 빠진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이든 세 가지 소원을 이뤄 준다고 하면, 두 번째 소원에서 스스로 타락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또한 과정이 없이 쉽게 얻다 보니 쉽게 빠져들기도 한다. 가히 지금은 '중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에만 빠져 다른 것을 둘러보지 못한다.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온갖 약부터 산다. 하루에 몇 알의 약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몸에 좋다는 약을 전부 사서 그것에 몸을 맡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운동에 관련한 수많은 장비와 상품부터 구매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보고 따라 하기 시작한 그것이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찬양의 말을 쏟아내다가 만약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단한 학술적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른 것에 빠져 그것을 했던 기억조차 못 한 채 관련 장비들은 집 안 어딘가에 쌓여 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인욕(忍辱)과 중도(中道)를 삶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긴다. 육바라밀에서 인욕은 정진(精進)의 바로 앞에 있다.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그것에 대해 섬세하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익히며 성실하게 닦아 자신이 만족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인욕이 있을 때 바르게 정진할 수 있고, 정진을 해야 집중된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인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범망경〉의 '제44경계 부중경율계(不重經律戒)'에서는 "항상 대승의 경율을 지니고 독경해야 하는데, 자신의 살갗을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신이 지금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 간절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경전과 율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부중경율계)'는 계목으로 부르는 것이다. 또한 "나무껍질, 종이, 비단, 대나무, 헝겊에도 사경을 하여 지녀야 하며, 항상 칠보와 좋은 향의 꽃과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모셔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배우고 익히는 경전을 귀하게 보관해야 귀한 가르침이 된다고 알려 준다.

영어사전이 귀하던 시절에 사전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공부하던 추억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듣고 싶은 가수의 앨범을 사기 위해 레코드 가게에 찾아가 어렵게 구해 집에 오는 내내 설레고 밤새도록 듣던 아름다운 청춘의 추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단어를 찾고 음악을 검색해서 듣는 지금은,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찾아보고, 그 노랫말이 뭐였는지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 게다가 어디서 찾아봤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다. 편리에 의해 시간은 절약됐지만, 그 시간 속의 간절함과 추억도 덩달아 절약돼 버린 듯하다.

속도 · 편리 중시 시대, 과정 소홀시
하나에 꽂히는 중독 폐해도 나타나

일상 방해 · 내팽개치는 중독의 집착
인욕으로 이룬 정진의 집중과 달라

불음주, 현대에선 중독 금지 가르침
투자 · 배움 · 운동 · 일 중독도 경계해야

인욕이 있어야 정진이 생긴다. 그러나 정진의 집중은 중독의 집착과는 다르다. 지나치게 한 가지에만 빠져 그것이 지금의 모든 것이 되어 일상을 방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팽개치게 한다면 그것은 삶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해 차근차근 해 나가며 적응이 돼야 하지만, 요새는 지나치게 편협하고 한 가지에만 빠져 그것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이라 여길 정도다.

무언가에 빠져 집중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빠지고 취해 버린다면 처음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점차 변해 가게 된다. 술을 금지시키는 '불음주(不飮酒)'의 계율도 술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 취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계율까지도 어기게 만들고, 그 자신조차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게 하기에 취하지 말라는 것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시대적으로 '중독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게임, 도박, 술, 마약의 중독은 단어만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중독보다 무서운 것이 투자, 배움, 운동, 일 등의 중독일 것이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살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투자가 잉여의 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전 재산까지 무리하게 투자하며 큰 실패와 빚을 지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중독이고,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허망한 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배움이나 운동도 자신이 하는 것만이 맞다고 여기고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빠져 지낸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점차 지치고 피폐해진다. 이는 약물 중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일 또한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일상에서 조화롭게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하거나 부의 축적만을 생각해 무리하게 일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만들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족이나 인연조차 살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 사회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자신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일인 것이다. 일을 하여 직위에 오르고 돈을 벌어 가족과 인연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며 일상이 되어 자신의 법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일에만 빠져 그게 전부라고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훗날 자신의 주변에 인연조차 남아 있지 않은 외롭고 쓸쓸한 어느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자신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 하루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 속의 자신은 모든 일을 자기답게 하고, 책임과 마음을 다해 살아야 한다. 무엇이든 쉽고 편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잊히고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발달 속에 편리함만 찾고 쉬운 것만 하려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편리의 발달에 밀려 버릴지도 모른다.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자기다운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독의 집착이 아닌 정신의 집중으로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토록 찾던 행복의 순간이 고개를 들어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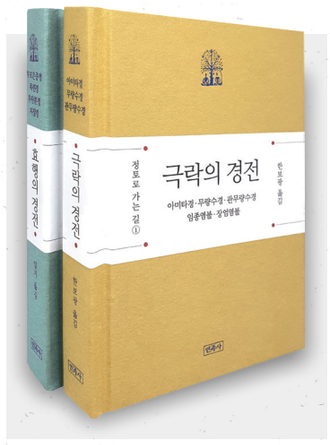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 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